



‘진심(眞心)의 리더’ 김영학 사장이 말하는 ‘공기업 이야기’

# 김영학의 감사래터

**신(神)의 직장에는 정말 신(神)들이 살고 있을까?**

‘전임자 책임이니 나는 현상유지만 하겠다’는 자세로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. 과감한 원인치료에 나서는 ‘바보사장’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? 공공부문의 경쟁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, ‘더 나은 성과’를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. ‘공부하라’는 잔소리를 매일 듣는 아이는 ‘스스로 공부하는’ 모범생이 될 수 없다. 최소한의 감독으로 공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함께 묻자. ‘스마트한 공공서비스’, 이젠 꿈이 아니다.

**고령화 쇼크, 수출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**

‘수출에 일희일비하는’ 높은 대외 의존은 한국경제의 고질병(病)이다. 하지만,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출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. 감소하는 국내 소비를 수출로 극복하지 못하면 산업 전반의 ‘쇼크’는 불가피하다.

**인공지능(AI)과의 동거, 수출의 미래 ‘소프트스킬’에 있다**

컨텐츠와 공감능력, 문화적 역량과 같은 ‘소프트스킬’이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이다. 이미 금융시장의 많은 일자리가 ‘시스템화된 의사결정 프로그램’으로 대체되고 있다. 로봇과의 동거, 이제는 현실이다.

무역보험공사  
김영학 사장의  
공 기 업  
현 장 에 세 이